

#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신창순 부장  
(주)삼화원종

5월 말 현재 육계시세는 kg당 900~1,000원, 초생추 시세는 수당 300~400원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나마 초생추 시세는 육계시세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안심할 일은 아니다. 초생추 시세는 육계시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세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초생추 생산량 및 사육수수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하여 종계병아리 입식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 GPS 수입쿼터로 인해 종계입식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육계시세가 900원까지 하락하고 초생추 시세가 300원까지 하락하는 불황의 초입에서 GPS 수입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긴 하지만 만약에 GPS 수입쿼터가 없었더라면 일찍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병아리 생산량의 약 6.8% 정도를 제한하는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아리는 생물의 특성상 적은 물량으로도 시세의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6.8%라는 수치는 매우 큰 수치이다.

또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종계의 살처분으로 병아리 생산량이 감소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시세가 형성된다는 것은 현재의 종계수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수임에 틀림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유통시장의 기능이 과거보다 매우 축소되었고 병아리를 구매할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체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장, 부화장, 유통, 계열사 모두에게 득이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 문제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의 틀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모두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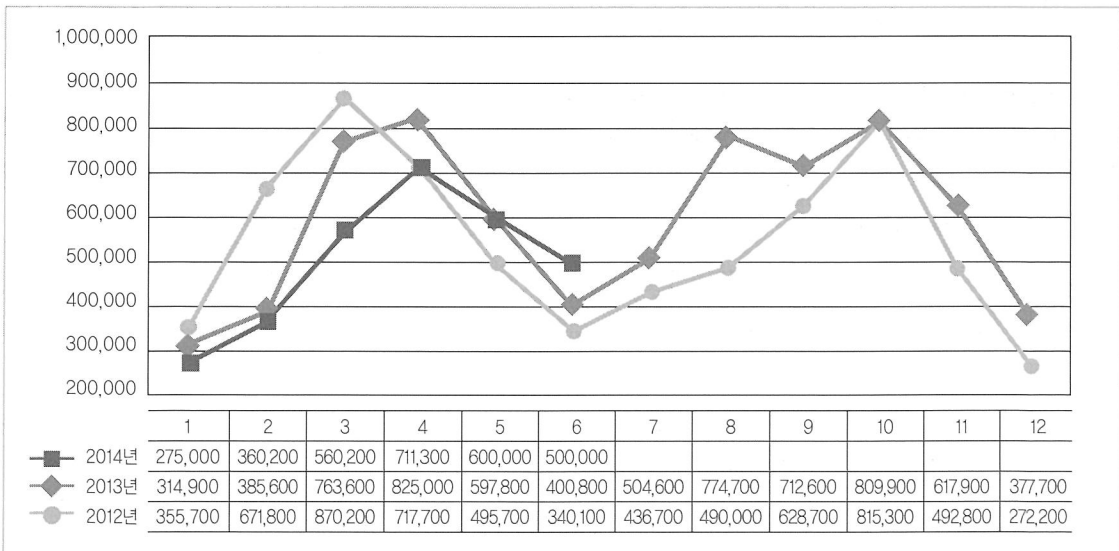
금년도에는 업체마다 종계병아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육계시세 900~1,000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1. 종계병아리 입식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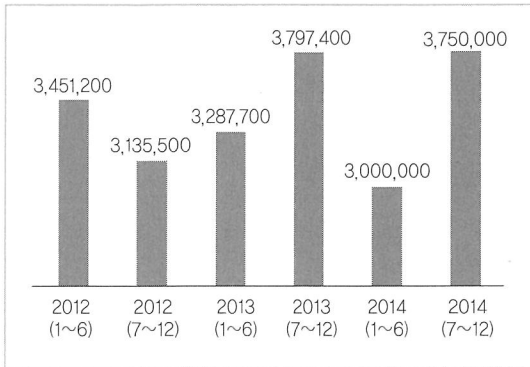
금년도 상반기에 종계병아리 입식수수는 약 300만 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약 91% 수준으로 9% 감소된 수치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약 370~380만 수 정도가 입식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9% 수준이다. 따라서 금년도 종계병아리 입식수수는 약 670~680만 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입식물량 대비 약 95%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과거에 650만 수 이상의

〈표 1〉 월별 육용종계 입식현황



※2014년 5월, 6월 입식량은 추정치임

〈표 2〉 반기별 육용종계 입식현황



※2014년도는 추정치임

종계가 입식되었을 때 불황이 왔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불황기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기 불황과 소비감소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숫자임이 틀림없다. 경기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종계병아리 입식수수가 줄어들어야 정상이겠지만 앞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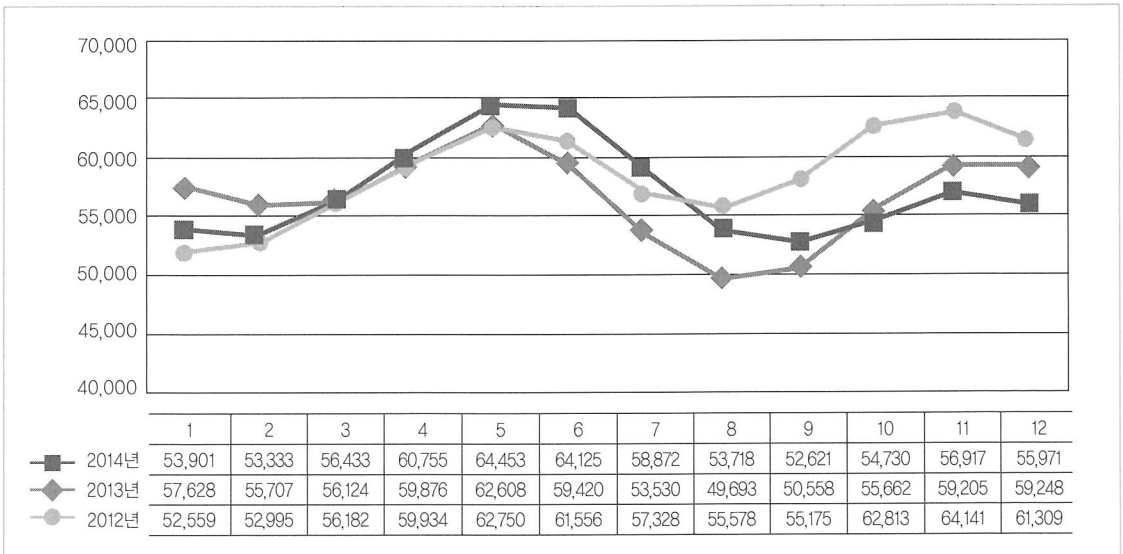
급했듯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는 계획대로 입추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680만 수 입추에 이어 내년도에도 680만 수 이상이 입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생산잠재량

올해 초생추 생산잠재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6억8천5백만 수이다. 시즌별로 보면 여름에는 생산량이 전년도 보다 10% 정도 많으며 겨울에는 약 6% 정도 적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환우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생추 시세의 하락은 환우계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환우계 물량은 정확히 알 수 없어 하반기에 얼마나 가담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년도에 약 700만 수의 종계가

〈표 3〉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단위 : 천수)



※2014년 5월, 6월 입식량은 추정치임

입추되었으므로 금년도에 약 7억 수의 초생추가 생산될 예정이었으나 AI 살처분으로 인해 생산량이 조금 줄어든 것이다. 올해에 종계병아리가 약 680만 수 정도 입추된다면 내년도 초생추 생산잠재량은 6억8천만 수가 되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생산잠재량으로만 보면 내년도에 원가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 3 생산성

최근 몇 년간 육용종계의 생산성은 계속해서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유전능력의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는 피크산란율의 경우 올봄에 시산한 대부분의 계군에서 85%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다. 이러한 생산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열악한 시설에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받아 생산성이 흔들릴 가능성은 높다.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4 하반기 전망

전통적으로 여름철이 되고 복날이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시세가 오르지만 최근 몇 년만 보면 여름철 복날에도 시세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연말이나 연초에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현상

은 올해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또한 6월 브라질 월드컵 예선전도 새벽에 경기가 열리므로 닭고기의 소비증가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따라서 6월부터 말복이 있는 8월까지의 경기는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에는 초생추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때에 시세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누구나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세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 5 맺음말

우려했던 현실이 어느새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었고 우리는 그때마다 고비를 잘 넘겨오면서 변화와 발전으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부화장과 유통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손에 꼽을 만큼의 부화장과 유통업체들만이 남아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도 끊임없이 변신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올 여름에 또 한번의 고비가 우리를 어떻게 변신시킬지 걱정이다. 왜냐하면 변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태되는 게 걱정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걱정이다. 종계·부화업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의 모든 구성원이 공정한 경쟁과 협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 